

# 남원 고용복지 원스톱 서비스

##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관련기관 입주 시민에게 편의 제공

다양한 고용지원과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남원시에 설치되어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남원시 향안로 30번지(하정동, 한화생명건물 1층)에 위치한 남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남원시와 고용노동부 남원고용센터 등의 기관이 입주하여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제공해오던 고용지원과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남원시청과 읍·면·동주민센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을 따로따로 방문하던 시민들의 불편이 사라지게 되었다.

남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는 남원시의 취업알선센터, 복지상담 및 통합사례관리, 자활지원,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지원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배치되어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고용노동부 남원 고용센터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실업급여, 고용보험 등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또한 서민금융상담 및 신용회복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지원

센터도 함께 운영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앞으로 남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각 기관간 서비스를 통하여 남원 시민들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올 여름 장마기간 동안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고창군이 태풍·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재해 취약지역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

## 고창군, 집중호우 재해 취약지역 사전 점검

### 급경사지·산사태 우려지역·저수지 등 안전조치

올 여름 장마기간 동안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태풍·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재해 취약지역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

5일 군에 따르면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급경사지, 산사태 우려지역, 저수지, 대규모사업장, 재해예방사업장 등 취약지역 점검을 통해 안전조치를 실시했으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재해예방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고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오는 10월 15일

까지로 정하고 태풍·집중호우 대응을 위해 기상악화 시 13개 협업부서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여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기상특보 시 주민들에게 재난문자서비스와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활용해 기상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며, 취약지역은 현장예찰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피해예방에 나서고 있다.

또한 각종 재난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요소를 사전 정비할 수 있도록 고창군 지역자율방재단, 민간예찰단과 함께 하천변 우수흐름을 저해하는 잡목 및 풀 제거, 시가지 우수

땀을 토사 제거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난재해 대응수칙 포스터를 제작해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마을회관 등에 게시하고 주민들이 태풍·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대응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해마다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는 만큼 사후 복구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예방"이라며 "이를 위해 평소 안전점검과 대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군민피해가 없도록 재해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순창군, 어르신 건강지킴이 한의약 기공체조 교실 운영

### 11월까지 매주 월·수요일

순창군 어르신들의 건강지킴이 한의약 기공체조 교실이 지난 4일 보건의료원 3층 대회의실에서 개강식을 갖고 본격적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기공체조교실에는 80명의 수강생이 참여하며 11월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33회에 걸쳐 진행된다.

한방 기공체조교실은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라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고위험군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공체조와 단전호흡을 통해 면역력을 향상시켜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날 열린 개강식에서는 교육에 참여한 80명을 대상으로 혈당, 혈압, 골다공증 검사 등을 진행해 몸상태를 체크했다. 군은 앞으로 기공체조를 통한 신체 변화정도를 알아볼 계획이다.

이날 개강식에 참석한 황숙주 군수 "노후에 필요한 다섯 가지 덕목으로 첫째 건강(健康)이고 둘째 처(妻), 셋째 재물(財), 넷째 일(事), 다섯째가



친구(友)다"라고 말하며 "기공체조교육을 통해 건강관리에 필수요소인 운동을 생활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영근 의료원장도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와 접근성을 위해 진로서비스와 다양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제공에 질병예방 및 치료는 물론 인식변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주민모니터링 회의와 설문조사 등을 거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은 기공체조교실 외에도 농한기 찾아가는 경로당 기공체조 교실, 한방가정방문진료, 중풍예방교실, 치매예방교실, 갱년기국복교실, 임마와 함께하는 한의약 육아교실, 골관절예방교실 등 다양한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순창 청소년의집 여가활용공간 '인기'

### 시내권 위치 접근성 용이 평일 60여명 주말 100여명 몰려

순창청소년문화의집이 주말 100여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몰리면서 건전한 여가선용 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군은 지난해 개관한 청소년 문화의집이 평일에는 60여명 주말 이용객은 100여명이 넘게 몰리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청소년문화의집이 인기를 끄는 비결은 기존 청소년시설에 비해 시내권에 위치해 접근성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 댄스·밴드·악기·노래연습실, 풋볼, 북카페 등 청소년들이 관심이 많은 분야의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다.

특히 청소년문화의집이 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도 인기의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실제 청소년문화의집은 탁트인 옥상에서 순창군청소년상담 복지센터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토크쇼 옥상카페를 열어 다양한 청소년들의 고민을 상담하고 있다. '스타워즈' 천문동아리 활동을 축으로 청소년들이 자신들만의 문화적 독창성을 키우고 리더십 향상을 도모하는 동아리 프로그램도 인기다.

또 단오문화체험기간에는 수리취떡 만들기, 단오부채 만들기 등 시기에 어울리는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다.

지난 6월 26일에는 전주YMCA가 주관하는 '진로탐색 미래를 상상하라 상상학교'에 40여명의 순창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청소년들이 다양한 사람들과 책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해나가고 있다.

한편 순창군은 최근 청소년문화의집을 비롯해, 작은영화관, 미술관, 드림필드오케스트라 공연 등 다양한 문화 시설과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 군민 문화향유 기회를 늘리고 있다. 최근에는 문체부 선정 전국 군 단위 문화지수 상위 10위권에 포함되는 성과도 거뒀다. /순창=이양원 기자

이 자신들만의 문화적 독창성을 키우고 리더십 향상을 도모하는 동아리 프로그램도 인기다.

또 단오문화체험기간에는 수리취떡 만들기, 단오부채 만들기 등 시기에 어울리는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다.

지난 6월 26일에는 전주YMCA가 주관하는 '진로탐색 미래를 상상하라 상상학교'에 40여명의 순창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청소년들이 다양한 사람들과 책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해나가고 있다.

한편 순창군은 최근 청소년문화의집을 비롯해, 작은영화관, 미술관, 드림필드오케스트라 공연 등 다양한 문화 시설과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 군민 문화향유 기회를 늘리고 있다. 최근에는 문체부 선정 전국 군 단위 문화지수 상위 10위권에 포함되는 성과도 거뒀다. /순창=이양원 기자

## 문화플러스

### 순창군의회 하반기 의정활동 본격

순창군의회(의장 김중섭)가 제217회 제1차 정례회 개회를 시작으로 지난 4일부터 오는 15일까지 12일간 제7대 하반기 순창군의회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순창군의회는 최근 1일 제216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하반기 의정에 김중섭의원, 부의장에 정봉주 의원, 운영행정위원장에 정성균 의원, 산업복지위원장에 손종석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제7대 하반기 순창군의회 임구성 후 처음 개최된 본회의에서 김 중섭 의장은 "제7대 순창군의회 하반기 출범과 함께 제217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2년간의 임기 동안 그동안 의정 경험과 열정으로 순창 의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군민 여러분 앞에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또 "후반기에는 첫째 군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 의정활동, 둘째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책임 있는 의회, 셋째 넷째 동료 의원과 함께 활기차고 하나되는 성숙한 의회상 정립, 넷째 군민이 공감하는 비전과 대안 제시로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 고창군 여름방학 대학생 일자리발대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군정 이해와 직장체험 기회제공을 위한 '2016년도 여름방학 대학생 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다음달 19일까지 총 203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여름방학 대학생 일자리 사업'이 5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이날 전했다.

고창군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학생 일자리사업은 고창군에 주소를 둔 전문대 이상의 대학생들을 모집해 실시하고 있으며 총 3기로 나누어 지난 4일부터 1기 참여자들이 행정현장에 투입됐다.

매년 방학에 맞춰 진행되는 대학생 일자리사업은 많은 대학생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자들은 소양 및 안전교육 후 근무처를 배치 받아 공무원들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행정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 임실군 계절꽃 경관조성사업 완료

임실군이 계절꽃 식재 등 상반기 경관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힐링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군은 주민과 내방객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가뭄회색 제공을 위해 6억4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임실을 감성리 일대에 소공원 조성 및 도시 숲 가꾸고 사업을 실시했다.

또한 강진면, 운암면 등 주요 도로변 약 5.2km 구간에 가로수를 조성하고 임실읍과 지사면에 철쭉류 4천여본을 식재한 가로화단 2곳을 조성했다.

이밖에도 임실을 시가지에 꽃 박스를 활용한 다양한 계절꽃 식재를 통해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선사하고, 감성리 치즈마을 방영천 일원에 철쭉류 6천7백여본을 식재, 치즈마을을 찾는 관광객들과 주민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읍 여성안심 귀가 집중 홍보

남원경찰서(서장 박훈기)는 5일 통동지구대에서는 여성안심 귀가 집중 홍보 및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아파트 관리소 측과 협조하여 지하 주차장 LED 140개 교체를 통해 여성 안심귀가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통동지구대 관내 관내 아파트 관리측과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안전한 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통동지구대에서는 주, 야간 여성 안심귀가 순찰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얼굴보면서 순찰 및 지역주민 대상 홍보활동을 실시 한 결과 여성들이 최근 경찰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하며, 여성들이 사회 진출의 범위가 넓어지니 늦은 귀가시간을 고려 심야시간 골목길 입구 및 여성 출입하는 공공장소 주변에 순찰차를 배치하고 주변 도로순찰을 실시 하고 여성 문자마 범죄 예방활동을 최선으로 다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임실군, 장마철 농작물 현장지도

임실군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농작물 안전관리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지도에 나섰다.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벼농사의 경우에는 논 주위 배수구를 철저히 정비하고 물에 잠긴 논은 서둘러 물을 빼 오물을 씻어 줘야 하며, 도열병, 흰잎마름병 등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

또한 고추, 참깨 등 밭작물은 배수로를 정비하여 습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고추는 지주를 단단히 손질하여 쓰러짐을 막아야 하며 작물이 침수되었을 때는 서둘러 물을 빼주고 쓰러진 작물은 땅이 마르기전 즉시 일으켜 세워 지주대 보강 후 즉시 역병, 탄저병, 담배나방 등 병해충 방제 약제를 번갈아 살포해 줘야 한다.

특히, 생육이 저조한 포장에서는 0.2% 요소액을 엽면 시비하여 조기에 회복시켜 주는 방법으로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과수는 외부에서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주변 배수구를 정비하고 강풍 동반 시 과실낙과 및 도복방지를 위해 받침대로 받치거나 끈으로 묶어 고정시켜 주고 비가 그친 후에 토양이 유실된 과원은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흙을 덮어주어야 한다.

농업시설물인 시설하우스나 과수시설 등 각종 농업시설물은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하고, 야외에 보관중인 농기계는 비를 맞지 않도록 피복재를 활용하여 덮어주고 물에 잠길 우려가 있는 저지대의 농기계는 안전한 자재로 옮겨 보관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장마철 농업재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 금년에도 고품질 농산물 생산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시설원예현대화 사업 추진 '성과'

### 무인방제시설·환풍기 등 설치

남원시가 원예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설원예현대화(품질개선) 국비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시설원예현대화(품질개선) 사업은 사업 신청의 주체가 출하조직(농협)이며 출하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조직(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가 출하조직을 통하여 신청하는 사업이다.

남원시는 올해 원예전문단지인 춘향남과프리카 영농조합법인과 일반원예 시설단지 4개소(4개농협)에 현대화시설 사업비 26억원을 확보하여 파프리카, 딸기, 오이, 멜론 출하조직에 무인방제시설, 자동개폐기, 양액재배 시설, 환풍기 설치 등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사업비기준 5천만원 이상 국비사업에 대해 감리제도가 신설되었으며,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을 사용하고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품질보증 신청 시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한 원가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ICT 융복합사업 확산을 위하여 ICT와 연계가 가능한 시설장비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2018년부터는 시설원예현대화(품질개선)사업에서 지원하는 채소류 재배시설에 대하여 GAP 인증을 받은 농업인·농업법인 등에 한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남원시에서는 2018년부터 사업 참여에 필요한 GAP 인증을 받도록 농가에 당부하고 있으며, 인력절감 효과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시설원예현대화(품질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